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3년 2월 4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한석홍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정책기사

## 택시업계의 숙원 '대중교통 시대의 꿈', 후보시절 약속했던 이대통령이 'NO'

'대통령이 이럴수가...'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중교통법으로 칭함)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날 30만 택시가죽은 경악하고 울분했다.

대중교통법은 지난 2007년 이명박 한 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 개인택시 업계를 찾아와 했던 약속이다.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난 1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22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법인데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30만 택시가죽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대중교통법은 지난 2007년 우리연합회가 건의하고 추진한 법률이다. 6년동안 참고 기다리며 추진했던 법률이었기에 1월1일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을때 우리업계는 이날을 '택시의 날'로 외치고 환영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넘지못하

고 1월 23일 국회로 반송되었다.

이제 택시의 대중교통법은 국회의원과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찬성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체입법인 '택시지원법'을 제정 택시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연합회는 이명박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던 대통령의 약속이어서 대체입법제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회가 다시 재의결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유병우 회장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라고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말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장관의 사대주의적 발상을 꼬집고 "민생정치를 구현하려는 우리나라 국회가 창조적으로 세계에서 첫번째 입법사례를 만들어 도탄에 처한 택시 산업을 살린다면 머지 않아 세계 각국의 국회는 우리 국회를 선진 국회로 인정하고

견학하러 올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 보며 아쉬워했다.

한편 우리 연합회는 반송된 택시대중교통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총력을 다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22일 우리 연합회를 방문, 유병우 회장을 비롯 16개 시·도 이사장과 함께한 연석회의를 갖고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민생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새누리당도 재결의에 찬성 투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연합회는 정부가 택시대중교통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법이 시행되면 1조9천억원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근거도 없는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도 총력을 쏟고 있다.

또한 1월23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

법)으로 대체입법하려는 정부계획에도 단호히 거부했다.

유병우 회장은 '택시지원법' 입법예고는 경영난에 처한 택시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하고 국회에서의 의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회장은 "택시의 대중교통법이 시행되면 1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거짓이 택시지원법으로 1년에 1천억~2천억원의 지원예산을 들여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설명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업계의 희망은 대중교통편입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6만 개인택시사업자를 포함한 30만 택시가죽은 택시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택시의 대중교통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에 차있다. <김관술 기자>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차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SM5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New SM5 Platinum 탄생

- ▶감각적인 럭셔리 스타일로 품격이 업그레이드됩니다
- ▶스마트 ECO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친환경 드라이브가 가능해집니다
-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숨은 위험까지 알려줍니다
- ▶프리미엄 나파시트로 실내가 더 특별해집니다
- ▶Smart Connect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간편해집니다
- ▶BOSE®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감동을 전합니다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New SM5 2.0 CVT II 엔진 :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59kg, 무단변속기, 연비 14.1km/ℓ, CO 배출량 166g/km, 25급 New SM5 2.0 CVT II LPLI 엔진 :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70kg, 무단변속기, 연비 10.0km/ℓ, CO 배출량 176g/km, 45급 \*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센터 (080-300-3000/02-300-3000)이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NEW SM5 Platinum

신년사

회장 유병우

#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 표결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금년부터는 택시업계에도 뭔가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송부되어 재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재임기간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기어이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우리 연합회 초청 간담회(2012.10.22)를 통하여 이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택시노조연맹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천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택시대중교통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1조9천억원을 가지고 대중교통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에 택시가 진입하게 되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이유로

1. 택시는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도 아니고,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지도 않는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이지 대중교통으로 보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 이법이 공포되면 당장 1조9천억이 지원될 것이다.
3. 택시법에 대해서 포퓰리즘 법안 아니냐고 말합니다.
4. 택시 수송분담율이 9%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외국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버스와 함께 택시도 엄연히 공공교통 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 택시법이 통과되면 예산 약 1조 9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되었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것일 뿐,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택시를 대중 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육성법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 직전까지도 정부에게 택시 업계와 타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켜보다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 또한 수송분담률 9%도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왜곡시킨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입법으로 내어 놓은 택시지원법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이와 같은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여 당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국회 재의를 1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며 2월 1일 부산과 광주에서 택시비상합동 총회를 했고 오는 20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합동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사업자 여러분!

지난해 연합회에서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서 택시대중교통법제화와 더불어 개인택시운송용 차량 구입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택시용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3년 연장, 차량취득세 감면일몰 기한 2015년 까지 3년연장, 택시감차비용 50억 확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236억확보 등 택시 사업자의 비용을 경감하게 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한해는 명실상부하게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룩한 값진 결과는 시·도조합 이사장님과 더불어 16만 개인택사업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연합회에는 조합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함께 지킨 교통약속, 함께 누릴 유토피아"







### 2013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홍보작품 공모전

올바른 교통질서인식과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약속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교통안전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함께 지킨 교통약속, 함께 누릴 유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을 선정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2013. 1. 2 ~ 2013. 3. 8

**모집분야** 포스터(어린이, 청소년, 일반)·사진·동영상(일반)  
**응모주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  
**응모방법**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응모  
**홈페이지** <http://contest.koroad.or.kr>  
**총 상 금** 25,550,000원  
**문의** 02) 2230-6092~3 · 6108 · 6084 |공모전 홈페이지 Q&A게시판

주최  도로교통공단 후원  경찰청

# 영남권 · 호남권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합동 총회

부산역, 광주역 광장에서 동시에 열려



▲ 2만3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부산역 광장(왼쪽)과 광주역 광장(오른쪽)에 모여 비상합동총회를 열고 대중교통법의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했다.

영남권 · 호남권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합동총회가 2월 1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과 광주역 광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개인택시 부산운송사업조합,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택련부산지역본부, 전민련부산지역본부 등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열린 부산 · 광주지역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합동총회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재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온종일 내린 빗속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합동총회에서 2만3000명의 참가자들은 "국회가 여 · 야 간 합의에 의해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대중교통법을 정부가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여론 호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택시 수송분담율이 9%수준에 불과하여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중교통 법이 통과되면 재정지원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이르러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마치 택시와 버스간의 이권 싸움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부산역 광장과 광주역 광장에서 동시에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 합동 총회에 참가한 2만3000여명의 택시업 종사자들은 "택시업계는 '대중교통법' 이 통

과되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어도 과도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택시업계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하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30만 택시가족은 '대중교통법' 통과에 따라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어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면 택시의 서비스질을 한층 높여 국민이 택시 이용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총회 이후에도 정부의 여론호도 행위로 인해 택시 법제화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면 2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비상합동총회를 시작으로 총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택시정책 부재 상황을 방치해온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역과 광주지역에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만3000여대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통령의 대중교통법 거부에 항의하는 한시적 파업을 단행했다. <김관술 기자>

## 우리연합회 김유중 전무이사 사임

12년 7개월 재임기간 동안 3명의 회장 보좌



12년7개월 동안 우리연합회 전무이사로 재직해 온 김유중 전무이사가 2012년 12월30일 사임, 정든 연합회를 떠났다.

김유중 전무이사는 1999년 5월 우리 연합회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2012년 12월30일까지 5연임 하면서 12년 7개월 동안 황의두 회장, 김남배 회장, 유병우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 발전에 헌신했다.

김유중 전무이사는 내년 4월 말까지인 임기 1년 3개월을 남겨 놓고 명예퇴임했다.

김유중 전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중책을 여러분의 도움속에서 무난히 마치고 2012년12월30일 영광스럽게 떠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성원과 격려의 은덕으로 생각되어 더 없이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짝막한 퇴임사를 남기고 12년 7개월 동안 재직해 온 연합회를 떠나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연합회 직원들은 떠나는 김유중 전무이사를 현관까지 나와 도열 박수로 환송하고 행운을 기원했다.

<김관술 기자>

##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대출안내

### 자동차구입자금대출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변동금리)	상환방법	할부추천서 발급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1,600만원이내	36개월이내	연5.50%	원금균등 분할상환	5만원~7만원 개인택시조합 복지회에서 수납	없음

▶ 서울 개인택시조합 복지회에서 발급하는 할부추천서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 대출상품 특징

- 하나! 금융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및 신용도에 따라 3% ~ 6% 금융수수료 적용)
- 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1% ~ 1.5%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 셋! 이용고배당 적용시 대출금리 우대효과 : 연5.30% (2011년도 기준)
- 넷! 개인 신용도 및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타 금융기관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5.5% ~ 7.0% 적용)

◆ 개인택시 대·폐차시 차량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MG**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문의 : 02.423.5087-9, 대출고객팀 및 각 지부사무실)



[신년 인터뷰] - 유 병 우 회장

## 16만 조합원과 단결하여 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님께서 2012년 한해를 보내시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20일 서울시 광장에서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주도 하였고 세계에서 첫 번째 입법사례로 손꼽힐만한 2013년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결의 관문을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 첩첩산중을 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대중교통을 골자로 택시법이 새해백두에 통과되어 기분 좋은 한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1월 2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재의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6만 우리 조합원이 있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2명의 국회의원이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찬성하고 택시법을 의결해준 대한민국 국회가 있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택시가 경영난에 처한 것은 우리업계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택시편허를 선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과잉공급한 정부에 절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타내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고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16만 우리 조합원과 단결하여 기필코 국회가 재의결하여 택시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택시도 버스, 철도 등과 함께 대중교통 수단의 한틀 속에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택시법이 재의결의 절차를 마치고 정부가 공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법이 발효되면 우선 감차보상 등을 조속히 실현시켜 경영난에 처한 택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차근 차근 제거하여 택시의 운송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1차 의결때 찬성표를 던져준 국회의원이 222명으로 재적 과반수를 넘는 숫자여서 재의결도 무난하리라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입법을 예고했고 일부 보수 언론이 편파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여론 물이를 하고 있어 우려되는데요.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거부권에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의결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법을 저지하려는 정부는 대체입법을 예고했고 또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에서 한 통속이 되어 택시법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도 조합이사장과 함께 방해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2월 1일 부산과 광주에서 동시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2월20일 서울집회까지 릴레이 식으

로 진행, 국회의 지지열기가 식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30만 택시가족도 일치 단결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택시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1월23일 정부가 거부권과 동시에 대체 입법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요.

- 우리업계의 일관된 요구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체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택시법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여객수송분담률이 40%인 택시를 고급교통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선기간 중에 새누리당 선대위 고위층이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연간 9000억원이 들어가는 택시지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임기말의 현정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작 연간 1000억~200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고급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센스지요.

우리는 대중교통택시법이 통과되어도 무리한 재정지원 요구보다는 경쟁력을 높여 업계 스스로 발전하는 대중교통의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재의결되고 공포되어 새로운 정부와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 스스로도 변화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6만 조합원에게 당부의 말씀은?

- 택시 영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개인택시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등 이용객이 느끼는 일체의 모든 불편사항이 완벽히 개선되도록 하여 신뢰받는 개인택시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6만 사업자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관술 기자)

www.klpg.or.kr

대한LPG협회

#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 LPG자동차 시대를 열어갑니다 🦋

경제성, 연비, 성능...기술과 에너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엔진기술의 대한민국 친환경 LPG자동차 -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에너지경쟁력을 키워줍니다



<b>Clean LPG</b>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LPG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어 사람과 환경을 지켜줍니다	<b>Power LPG</b> 세계 최고의 엔진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힘과 연비, 성능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b>Economy LPG</b> 휘발유의 절반 수준인 연료비와 향상된 연비로 고유가 시대를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	--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인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집중해 주시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울조합 조합원은 작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생대통령', '약속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이 되겠다는 3가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대할 겁니다.

작년 10월22일 우리 연합회를 방문하여 택시업계의 청원을 청취하시어 파악하고 계시는 대중교통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난 택시업계 지원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챙겨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약속의 대통령이시기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재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지난 10월 22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저희 개인택시연합회 회관을 찾아주셔서 저희 개인택시 16개 시도 이사장들과의 간담회 때 당선자님이 하신말씀 하나하나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 업계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공약엔 택시법은 없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법이 재의결되어 30만 택시 종사가 희망을 갖게 해주실 것을 학수고대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정부와 협조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우리나라 대중교통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몸소 택시업계를 수차례 방문하실때마다 파악하신 것처럼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선자께서 재의결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들은 서민의 삶의 고통을 알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공유하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오랜 정치 철학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과 신뢰의 지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전국 100만 택시가족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자의 각별한 애정을 바라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문욱**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합'이라는 가치아래 2013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참으로 다사다난 했으며 특히 우리 택시 업계로서는 생존의 사활을 걸었던 한해였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새출발하는 희망을 갖고 설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설레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택시법을 당론으로 약속했고 박 당선인께도 약속의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서 국회가 재의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택시 업계가 고통받지 않고 활짝 웃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15년 간의 정치여정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살아오셨고 또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통합대통령의 세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공약을 꼭 지키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성우**



대한민국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도약하려는 2013년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시에 5500여명의 대전광역시 개인택시사업조합원과 함께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당선인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약속했던 택시법이 재의결되어 약속지켜지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약속의 대통령', '민생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택시업계도 대중교통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민에게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우리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택시법이 통과되어 공은 정부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업계가 요구하기전에 먼저 정부가 지원할 부분을 개발하여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는 지리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으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실줄 압니다.

특히,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대구택시 업계의 어려움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의 인구는 약 250만명, 전체 차량은 약 100만대, 택시는 1만7천여대로 공급과잉인데다 2014년 도시철도 완공되고 경북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승객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택시운송여건을 개선하여줄 새정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들식**



경북의 7천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시절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택시 산업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과 공약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저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꼭 지켜주시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박당선인이 소중게 생각하시는 약속의 정치가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법은 국회로 반송되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당론으로 약속했던 택시법이 재의결되어 박당선인을 존경하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대중교통 시대를 여는 택시가 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배판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우리 경남개인택시 가족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세가지 국정기본 과제를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의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꼭 피울수 있도록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는 택시법이 입법되기를 바랍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는 법률 말고는 어떤 대체 입법도 30만 택시가족은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도움으로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편입된다면 30만 택시 가족은 박근혜 대통령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창영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2만5천여 경기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침체 일로로 내닫고 있는 30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바랍니다.

현재의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치솟는 LPG가격 및 자동차 정비 관련 부품값의 상승과 지난 4년간 동결되고 있는 택시요금 등으로 인하여 도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경기도 개인택시 종사자 모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위기에 처한 개인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회생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는 택시법 제정이 해법임을 건의드립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주원



박근혜님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강원도개인택시 전사업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겨울이지만 앞으로 5년은 당선자님과 함께 모든 택시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픈 기대감으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당선자님은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예전에 택시기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누구나 선망하는 중산층 삶을 사는 직업이었지만 택시의 과잉 공급, 요금의 비현실화, 택시연료의 가격폭등, 택시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부디 전국 30만 택시가족이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감차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크게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떳떳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떳떳한 대통령이란 이번 선거에 임했던 자세처럼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서민과 민생경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성장을 몇 프로 이상 하고 국민의 삶을 전 정권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갖가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실천은 못하고 임기 말에는 항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가운데 쓸쓸히 퇴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성공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30만 택시가족의 고단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택시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남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희망찬 새해가 펼쳐졌습니다.

전국 택시가족들이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는 새 대통령을 믿는 만큼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택시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 제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 개선 대책으로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차기세 면제와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해 운임연동제와 별도로 사전원가보상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농촌실정에 맞는 농촌을 살리는 복지차원에서 택시이용쿠폰 발행제도 추진등 택시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작년 대선기간에 당론으로 약속했던 택시법이 재의결되어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약속의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현태



희망과 새시대를 열어갈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30만 택시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당선하기까지 어려운 고비와 힘들었던 사건,사고등 어느 선거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나 바람도 클 수밖에 없고 최우선 과제인 국민통합실천,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해소, 지역균형발전등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100% 대한민국을 강조 했습니다. 벼랑 끝에 처한 우리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한 택시 대중교통법제화, LPG가격안정화, 택시연료다양화, 택시감차보상, 택시요금 현실화등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 우리 택시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분이므로써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경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 무엇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선거기간에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5년 후 퇴임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인택시 연합회를 직접 찾아와 택시업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곧바로 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택시관련 6대 공약사항을 수립하였으며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으로도 감차보상실시, 택시연료다변화,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책공약 및 국가발전 청사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우덕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께서는 양극화와 세대 및 이념간의 갈등, 일자리 창출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숙원 사업인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전국 약 30만명의 택시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현안문제인 택시요금, 택시연료 다변화, LPG가격의 안정화등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복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되어야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성장과 화합의 정치, 우리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새 정치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고영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술한 우여곡절을 겪고도 투표수 과반수이상이라는 사상 최고의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당선되신 새 대통령에게 우리 택시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등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국민 대부분은 대선기간 동안 자고 일어나면 대선 후보들의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당선 이후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않고도 책임있는 행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실천으로 지켜나가길 기대하며,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간 소외된 택시업계가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로 약속의 대통령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 여·야의 약속인 ‘택시법 재의결’ 흔들리면 대중교통 약속 어긴 국회 권위 흔들리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역삼동 개인택시 연합회를 방문, 유병우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대중교통택시법 ‘대중교통육성및이용에관한법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다.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양당은 대중교통법을 경쟁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담보된 대중교통택시법은 2013년 1월1일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2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소중한 합의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2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투표한 무게가 실린 대중교통택시법을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려는국회와 고급교통으로 정의하려는 정부 간의 해묵은 대립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연장전을 치루게 되었다.

국어사전에는 ‘대중’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여러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급이라는 단어는 등급이나 계급이 높음 또는 높은 표준이나 품질로 풀이하고 있다. 수송 분담율이 40%인 택시는 버스처럼 수많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사전적 의미로 따져도 택시를 쉽게 대

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지를 걸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정부의 속셈은 무엇일까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오랜 세월동안 버스는 대중교통, 택시는 고급 교통으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분법으로 분류해 놓고 버스에만 준공영의 예산지원을 해 오다 택시까지 대중교통이 확대되면 예산지원이 증가되는 것을 두려워서 하는 억지라”고 말했다.

또한 유회장은 일부 보수언론이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이라고 비난, 국회를 공격하는 것은 재의결을 막으려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결 요구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강경하다. 새누리당이 한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민주통합당이 재의결을 요구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회갈등을 부추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새누리당과 함께 재의결하여 국회의권위를 지킬것이다”고

재의결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에 한 공약인데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공약을 국회가 챙겨줬는데 감사의 표시는 못할 망정 거부권으로 반기를 든 것은 “시주는 하지 않고 배낭을 찢는 심술과 같다”고 분노하고 국회가 조속히 재의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올해로 27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택시업계를 비난하는 신문이 많아 신문보기가 겁난다고 말한다.

택시법을 재의결해주도록 요구한 1월 23일자 조선일보는 ‘박공약엔 없는 택시법…여권중진들도 부정적 기류’ 제목의 기사를 싣고 부정적인 택시법 여론을 띄웠다.

이것은 약속을 중시하는 박당선인의 영향력이 국회 재의결과정에 끼여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격분했다.

또 한회사 택시기사는 같은 날 동아일보에는 ‘회사도 정부도 못믿어…현장 목소리 반영’을 ‘거리에서 만난 회사택시운전자들 택시법 아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20명의 법인 택시기사 중 16명이 택시법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올 수 있는나고 울분을 터트렸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대로 박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역삼동 소재 개인택시전국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조선일보는 택시기사들과 만나’로 보도했다.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을 비롯 16개 시도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인것 같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새누리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박당선인이 연합회를 방문 약속한 이후 새누리당은 대중교통택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박당선인이 연합회를 방문한지 4일 후인 10월 26일김종인 당시 선대위행복추진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일부고속도로 구간과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내일부구간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와 별도로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 해 연간9000억이 들어가는 파격적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 택시법이 폐기되면 ‘약속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공약 불신 받는다



▲ 박근혜 당선인은 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택시법 입법지원 약속을 질문 받고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렇다면 박당선인은 후보시절 “대중교통택시법을 포함하여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합회를 방문 약속

한 약속 이후 쏟아진 공약들은 박후보가 직접한 약속이나 다른데도 조선일보는 집요하게 박당선인과 택시법을 관계 없는 것처럼 보도해 떼어놓으려 하고 있

다.

우리연합회는 ‘朴공약엔 없는 택시법...여 중진들로부터 부정기류’로 제목을 달고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약속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새누리당이 대선때의 약속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재의결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연합회는 2월 1일 부산과 광주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 합동 총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국회가 조속히 재의결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월 20일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서울 비상 합동 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부당성을 규탄하고 2월 20일까지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될 경우 무기한 택시 운영을 중단하는 투쟁 수위를 정해 놓고 국회의 재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30만 택시 가족은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택시법은 재의결 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재의결 의지가 확실한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 정치를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까지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신호를 보냈었고 거부권 직후에는 “반드시 재의결 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은 2012년 12월 9일 밤 11시 5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해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세가지 약속을 드렸다”면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생생한 연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30만 택시 가족들은 공정해야 할 언론이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은 대오 각성할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관술 기자〉

## 겨울철 빙판길에서의 염좌와 골절



요즘 잦은 강설과 강추위 탓인지 유난히 다리와 허리를 뻐 환자나 골절 환자들이 많다.

대부분은 빙판길이나 눈길에 넘어져서 가볍게 멍이 들거나 관절의 염좌(捻挫-뺨) 환자지만,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어 장기간 고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본다.

염좌나 골절로 인한 증상은 사고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찰하여야 한다.

젊은 사람은 신경반사가 신속하므로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적지만, 노인의 경우 엉덩방아를 찧게 되어 꼬리뼈를 다치거나 척추에 충격이 가게 되어 허리나 등, 목에까지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통상 아이들은 넘어지더라도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 정도가 심하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응급처치 및 치료

다친 부위가 열감이 나타나고 붓는 경우라면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10~20여분 다친 부위를 문지르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는 얼음을 바로 접촉시키지 말고 고무장갑에 얼음을 넣고 마른 수건으로 감싼 다음 피부에 대어야 피부의 손상이 적다.

보통 하루나 이틀 가량 시행하되, 부종이나 열감의 감소정도에 따라 냉찜질을 줄여나간다.

2~3일이 지나서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약해지면, 따뜻한 찜질을 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다친 부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뜨거운 찜질팩을 바로 대지 말고 물을 약간 적신 수건을 감싸서 온기와 더불어 습기가 피부에 침투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만약 다칠 때부터 충격이 심하거나, 처음은 경미하였어도 2~3일이 지나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거나 부종이 심하다면 X선 검사를 받아서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은 경미하더라도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노화로 약해진 뼈가 충격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한 인대손상이나 골절의 경우 깁스를 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부분적인 종창과 통증이 생기고, 때로는 멍이 들기도 한다.

멍은 모세혈관의 파열로 인해 생긴 것으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손상 부위에 치유 물질의 유입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멍의 신속한 제거가 회복에 중요한 요소다.

### ▶ 예방이 최선

우선 외출할 때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도록 한다. 신발은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고른다.

길을 갈 때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빙판길은 피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특히 조심한다.

몸에 힘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잘 넘어지지 않으므로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운동을 하여 근육과 인대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지나친 음주는 삼가해야 하겠다.

〈보상팀〉

기본목표

- 1. 불합리한 관계법령개정 및 업권신장
- 2. 경쟁력 제고 및 세제개선
- 3. 서비스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활성화
-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기능 역량강화

1 불합리한 관계법령개정 및 업권신장

-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포함 등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도록 택시연합회 및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택시감차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 국토해양부에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건의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태파악 및 개선
  - 총량제 실시 현황 파악
  - 총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적극 저지
  - 여객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도 도입 적극 대응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규모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기준 마련
- 개인택시 운전경력 관리제도 개선
  - 조합의 운전경력발급 근거마련(시행규칙개정)
- 대여자동차 규제완화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및 운전자 알선 허용 등에 대한 대책추진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제도 개선 추진

2 경쟁력 제고 및 세제개선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연료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면제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세전 공장도가격 및 판매부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차량유지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택시연료의 다변화 추진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휘발유, CNG 등으로 확대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IF)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수입 LPG와 국내정제 LPG에 대한 가격차별화

- 기타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활동 강화
- LPG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적극독려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 제출촉구
-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추진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공급차량의 취득세 전액 면제 추진
- 그린카(친환경차량) 도입여건 조성
  -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적극 추진
- 택시운임·요금의 할증범위 확대 추진
  - 승차인원 3인 이상부터 1인당 추가승객운임 할증적용(6세미만제외)
  - 주말 및 공휴일 할증
- 콜밴, 자가용유상운송, 대여자동차 등 불법여객운송 행위 단속기구 상설화
  - 민·관 합동 단속기구 상설화를 위한 기구 신설
  - 운송질서 확립 및 불법여객 영업행위 철저 단속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 “카드체크기 가맹점 수수료” 1.5% ~ 1.8% 수준으로 건의

3 서비스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활성화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등
- 콜 시스템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확대유도
  - 콜 장비 등 각종 서비스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 건의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 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관련 대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 적극건의 및 시행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4 단체 활성화 및 홍보기능 역량강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 개선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년4회 발간)
  - 매스컴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 사회복지사업
  -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2013년도 연합회 세입세출예산 의결

□ 2012년도 연합회 제10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12. 18일에 개최되어 2013년도 연합회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여 모든 예산을 동결하고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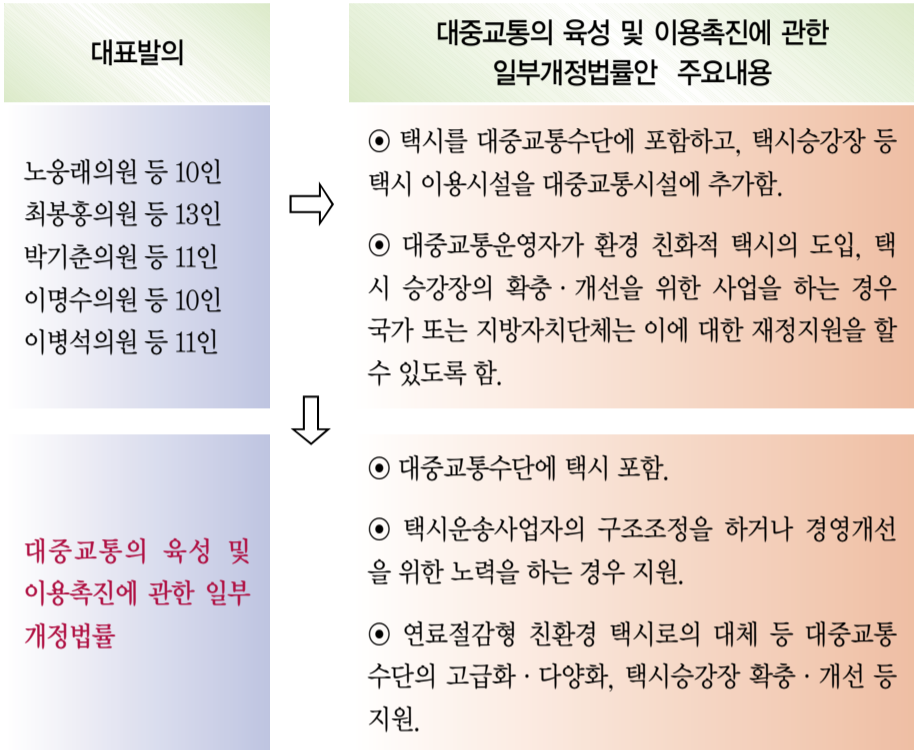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2013년 예산
◎ 세입	1,963,253,200
회비	1,662,253,200
이월금	300,000,000
기타수입	1,000,000
◎ 세출	1,963,253,200
1. 사무비	959,461,700
○ 인 건 비	609,941,300
· 급료	323,352,000
· 상 여 금	193,116,800
· 수 당	93,472,500
○ 물 건 비	349,520,400
· 여 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52,440,000
· 수 용 비	17,700,000
· 수수료수선비	5,460,000
· 시설관리유지비	36,000,000
· 복리후생비	215,502,400
2. 사업비	750,970,000
○ 물 건 비	189,120,000
· 여 비	46,100,000
· 수 용 비	87,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복지사업비	-
○ 판공비	315,600,0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89,6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16,250,000
· 회 의 비	155,3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 상 비	5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담금	14,986,800
○ 분담금	14,986,800
· 교통개발연구원 분담금	11,386,800
· 단체회비분담금	3,600,000
· LPG가격공동분담금	-
5. 적 립 금	120,000,000
○ 적 립 금	120,000,000
· 퇴직적립금	120,000,000
6. 예 비 비	92,834,700
○ 예 비 비	92,834,700
· 예 비 비	92,834,700

## 2012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적극 추진

□ 여·야 국회의원 55인이 택시업계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312회 국회본회의를 통과('13. 01. 01) 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이송되어 재의결 예정이다.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4단체는 공동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간담회,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사항
11월 0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문 발송</li> <li>▶ 11월 20일 이전에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li> <li>▶ 11.20일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li> </ul>
11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성명서 발송</li> <li>▶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의결을 환영하며, 11월 20일 제2차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 개최 잠정 유보</li> </ul>
11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성명서 전달</li> <li>▶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건의(15명)</li> <li>● KBS1 라디오 인터뷰</li> </ul>
11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 및 문화일보 광고게재</li> <li>▶ <b>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b></li> <li>● 제3차 성명서 발송</li> <li>▶ 전 국회의원(300명)을 상대로 건의</li> </ul>
11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업계 4단체 기자회견</li> <li>▶ 버스 운행중단 시 택시 25만대 동원 시민 교통편의 제공</li> </ul>
11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 광고게재</li> <li>▶ <b>택시업계는 오직 국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만 생각하겠습니다!</b></li> <li>●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li> </ul>
11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성명서 발송</li> <li>▶ 2012년 12월 7일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 개최</li> <li>▶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등 순차적으로 개최</li> </ul>

12월 0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성명서 발송</li> <li>▶ 2012년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li> <li>▶ 내년 대중교통법 통과되지 않을 경우 25만대 30만대 30만종사자 비상총회 개최</li> </ul>
12월 0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노·사 4단체 대표자와 국토해양부 간담회</li> <li>▶ 대중교통수단에 택시포함 우선과제 추진 건의</li> </ul>
'13.01.0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 광고게재</li> <li>▶ <b>국민에게 사랑 받는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b></li> </ul>
'13.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 광고게재</li> <li>▶ <b>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는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입니다!</b></li> </ul>
'13.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광주 택시생존권사수비상총회 개최</li> </ul>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 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택시 운송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연료용 부탄에 대하여 킬로그램 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사업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5년까지 면제와 개인택시사업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동법률안이 조세소위원회 통과('12. 11. 23), 기획재정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12. 12. 31), 제312회 국회본회의를 통과('13. 01. 01) 하여 공포하였다.**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오제세의원 등 11인 ( '12. 0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li> </ul>
전병헌의원 등 11인 ( '12. 0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로 5년 연장.</li> </ul>
이낙연의원 등 15인 ( '12. 0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li> </ul>
윤관석의원 등 17인 ( '12. 0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li> </ul>
조원진의원 등 10인 ( '12. 08.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연료 및 차량, 차량유지를 위한 용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li> </ul>
유정복의원 등 11인 ( '12. 0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택시사업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모두 면제.</li> </ul>
나성린의원 등 12인 ( '12.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ul>
정부 ( '12. 0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까지 택시사업용 부탄에 대한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 감면.</li> </ul>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 '13.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차량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면 일몰기한 2015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li> <li>○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한시적 면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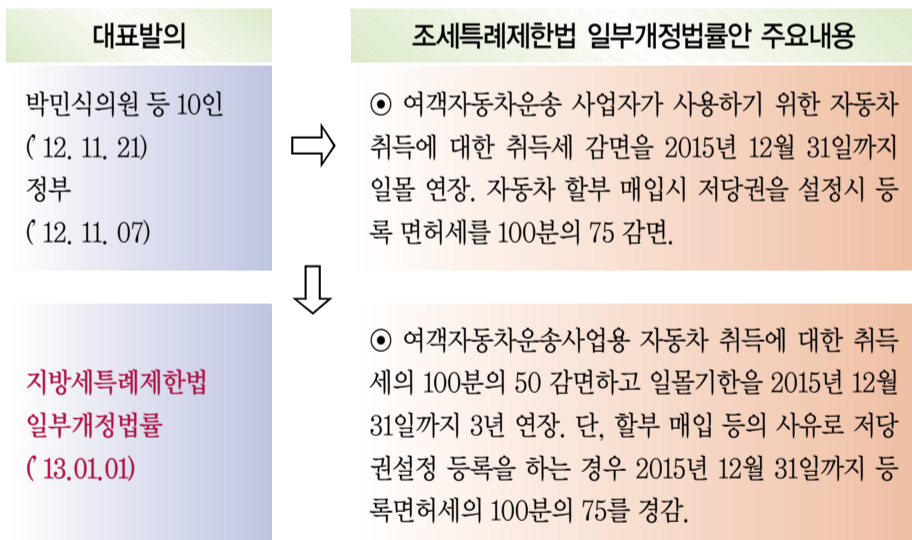
□ 연합회는 개인택시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를 여·야 정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사항
02월 0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호소문 제출</li> <li>▶ 기획재정부장관, 각 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위원, 조원진·허태열·박병석 의원</li> </ul>
09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호소문 제출</li> <li>▶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11인)</li> </ul>
09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디젤 및 CNG택시 등 연료다변화 호소문 제출</li> <li>▶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11인)</li> </ul>
11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실장, 과장 면담</li> <li>▶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설득(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율 현재 40% 적용을 20%로 하향 조정을 약속)</li> </ul>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 국내 경기침체와 석유가스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의 감소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그나마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일몰기한으로 감면되어 많은 경제적 수혜가 되었으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부담완화 차원에서 연장하고자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일몰연장 관련 동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 12. 11. 23), 기획재정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 12. 12. 31), 제312회 국회본회의를 통과( 13. 01. 01) 하여 공포하였다.



### 4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성황리 개최

□ 택시 노사 4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금번 행사는 유사 이래 최초이며 최대규모로 치러진 대규모 집회로 택시업계의 절박함을 국회, 정부 및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LPG 가격안정화 및 연료다변화 ▶택시감차 보상 ▶택시요금 현실화 등이다.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사항
03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법인택시 공동 LPG고유가 대책회의</li> <li>▶ 양 단체회장, 시·도조합이사장 및 전무이사 등</li> <li>▶ 총선 이전 10만명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4월4일, 여의도 개최)</li> <li>▶ LPG 고유가 대책집행위원회(양 단체 회장 및 8인 이사장) 구성 및 제반 모든 업무 위임</li> <li>● LPG 고유가 대책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li> <li>▶ 19대 국회 구성 및 대선 경선 시점인 6월 중으로 연기</li> </ul>

03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고유가 대책집행위원회 제2차 회의</li> <li>▶ 집회일자 2012년 6월 20일로 잠정 결정</li> <li>▶ 차량스티커(10만개)와 포스터(5천장) 제작, 탄원서 제출</li> </ul>
04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스티커, 포스터 부착</li> </ul>
05월 0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고유가 대책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li> <li>▶ 장소:여의도 광장 또는 시청앞 광장</li> <li>▶ 일시:2012년 6월 20일 오후</li> <li>● LPG 고유가 관련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 관련 면담신청</li> <li>▶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li> </ul>
05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연료 LPG(부탄) 가격 폭등에 따른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옥외집회 신고접수(서울광장·여의도 문화마당내)</li> </ul>
05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포스터 부착</li> </ul>
0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이벤트사 계약</li> </ul>
06월 0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홍보-문자발송</li> <li>▶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6월 20일 택시 전 차량 운행정지 후 서울 광장 집결</li> </ul>
06월 0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고유가 대책집행위원회 제4차 회의</li> <li>▶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관련 건</li> <li>▶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계획 통보(시·도조합)</li> </ul>
06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의대회와 관련하여 차량운행정지 시간(00:00-24:00) 및 집회시간 준수 요청(시·도조합)</li> <li>● “택시연료 LPG(부탄) 가격 폭등에 따른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옥외집회 신고접수(서울역 광장)</li> </ul>
06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li> <li>▶ 2012년 6월 20일(수) 13:00-15:30 서울광장(시청 앞)</li> <li>▶ 택시 관계자 약 6만 여명(경찰 추산 3만 8천명) 참석</li> <li>▶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황영철의원, 김영우의원, 이현재의원, 이완영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li> <li>▶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홍영표의원, 김경협의원, 전병현의원, 은수미의원, 한정애의원, 정성호의원, 최민희의원, 이석현의원, 김상희의원, 김관영의원, 이언주의원, 이상민의원, 전정희의원, 박홍근의원</li> <li>▶ 전국 택시 운행 중단율 : 약 84.3%(국토해양부)</li> </ul>

### 5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공약 채택 건의

□ 연합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원유를 비롯하여 LPG 국제가격(CP)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내내수 경제불안으로 택시수요 마저 급감하고 있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박근혜), 민주통합당 당대표(한명숙)에게 건의( 12. 02. 03)하였고, 또한 택시 노·사 단체 공동명의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에 제19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서( 12. 02. 17)를 제출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택시·버스·화물업계는 제18대 대선 공약에 택시업계의 현안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 12. 09. 11)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li>◎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 편성</li> <li>◎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택시 포함 -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등</li> <li>◎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li> <li>◎ 택시연료 유종다양화</li> <li>◎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수수료 면제</li> </ul>

### 6 대통령 후보·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 연합회는 제18대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택시 차량

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 편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다양화 등을 건의하였다.

일 정	참 석 자
02월 06일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인재영입위원장 조동성 ● 연합회장, 시·도조합이사장, 연합회 임·직원 등
03월 07일	●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연합회장, 연합회 임·직원 등
03월 23일	●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연합회장, 연합회 임·직원 등
06월 15일	● 새누리당 나성린의원, 기획재정부 세계실장 백운찬 ● 연합회장, 부산조합이사장, 연합회 임·직원 등
06월 26일	●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안효대 의원, 정양석 전 의원 ● 택시노·사4단체 연합회장, 위원장, 임·직원 등
08월 27일	● 새누리당 김세연의원,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김학원 사무관,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입법조사관 ● 택시노·사4단체 전무이사·사무처장 등
10월 22일	●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유정복, 직능위원장 이인기, 대변인 조운선 ● 연합회장, 시도조합이사장, 연합회 임·직원 등

□ 새누리당은 우리업계의 현안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12월 10일	● 개인택시업 대책(새누리의 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 7 현안문제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건의

□ 연합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제19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법건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의원에게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합회의 법률 제·개정건의 요청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 12. 04. 12)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택시차량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2015년 12월 31까지 면제) - 택시사업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 연장(2015년 12월 31까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차량청결 상태 점검제도 개선 - 택시 승차인원할증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도 도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 당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2012년 6월 20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택시 노·사 대표와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실·국장 면담 시 30만 노·사 정책 개선 건의서(LPG부탄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편성,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택시요금 및 운임인상)를 제출( 12. 05. 08)하였다.

## 8 택시노·사 대표 등과 중앙부처 간담회

□ 택시노사 대표와 중앙부처 장관(고위공직자) 간담회( 12. 05. 17, 06. 12)

-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 전택노련(위원장 문진국), 민택노련(위원장 구수영) 등 택시노사 대표는 최근 LPG가격 폭등에 따른 택시업계 생존을 위한 6.20 대규모 집회에 앞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장관(고위공직자)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내용과 정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답변내용(국토해양부)
◎ 광역콜서비스 추진	◎ 40억~50억 예산 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 진행 중임.
◎ 경유(크린디젤)	◎ 환경부의 용역이 7월~9월에 마무리 예정임.
◎ 택시감차 추진	◎ 2013년도 예산으로 50억을 계획 중임.
◎ CNG 택시	◎ 차량가격 추가비용, 대구·대전 등 시설·안전 문제 등 검토
◎ 택시요금 인상	◎ 6월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시도교통국장 회의 준비 중이므로 검토
◎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 택시가 포함되는 것은 논란이 있음. 대중교통의 기본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므로 추진하기 곤란함.

□ 국토해양부와 택시 노·사단체 간담회( 12. 12. 06) 결렬

-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윤학배,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김유인 사무관, 전택노련 이갑윤 위원장(직대), 민택노련 구수영 위원장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등

□ 국토해양부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12. 02. 01)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 -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도로교통법」제 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거짓이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부정 수급권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취객 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하도록 하는 등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 12. 05. 23)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 신설 ◎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 경기조합을 가다

경기도 조합은  
대중교통시대에 걸맞는 경영을  
하기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



경기도 조합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28개 시와 4개 군조합으로 구성된 거대조합이다.

2만5700명의 조합원이 수도권에 광활한 지역을 누비며 택시운송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조합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조창영 이사장은 제8대 이사장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5년 4개월째 역동적으로 경기조합을 변화시키는 경영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7일 대지 2313평, 연건평 면적 1296평으로 건축된 웅장하고 쾌적한 사옥 2층 이사장실에서 조창영 이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인 대중교통 편입이 확정되면 우리 업계에 대한 정치 지원이 확대되어 그동안 힘들었던 경영난 해소에 큰 힘이 되겠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을 승객에 대한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도조합은 대중교통시대에 걸맞는 경영을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이면 제10대 이사장으로 연임을 시작하는 조 이사장은 벌써 택시의 대중교통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1991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수원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여 두차례나 수원시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경영자다.

2009년 1월 1일 제 10대 이사장에 취임한 조 이사장은 취임 1년 5개월만에 조합을 현재의 신사옥으로 이전해 일거에 2만7000여 조합원의 긍지와 자존심을 높이는 역량을 발휘했다.

“경기도 조합은 성남시 조합 등 28개 시조합과 여주군 조합 등 4개 군조합으로 구성된 경기도 조합은 서울시조합 다음으로 큰 거대조합입니다. 구조합 사무실은 비가 썰 정도로 낡은데다 주차장이 없어 조합원들의 조합출입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런 조합 사옥을 벗어나지 않고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조 이사장은 번듯한 조합사옥으로 이전을 이사장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고 9대 이사장 취임후에는 최대과제로 삼고 추진

했다고 설명한다.

경기도 조합은 신사옥 이전으로 구태의연한 조합 이미지가 참신하게 변화되자 조합원들의 조합신뢰가 높아졌고 직원들의 근무 자세도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 ◆ 신속한 현안 해결

경기도 조합은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차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신

속하게 이끌어냈다.

영상기록장치는 장착비용의 90%를 도비지원을 받아 2012년 12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2만 5700대에 100% 완료했고, 디지털운행기록계도 대당 30만원(장착비 포함)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카드수수료를 2.5%에서 1.9%로 낮추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연 5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11억6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실현해냈다. 운송수입이 열악한 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의 80%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받는 등 도조합은 지자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경기조합 사옥.

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청을 비롯 시·군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가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 김문수 도지사는 손수 택시 운전 경험을 정도로 택시업계에 대한 이해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사님을 뵙고 건의하면 거의 다 들어주셔서 이사장을 비롯해 전조합원이 늘 감사하고 있지요”

조 이사장은 “도와의 원활한 대화통로가 구축되었을 때 업권수호를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 시·군조합 역량 강화 추진

경기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사업을 직영할 수 없는 도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체산제로 시·군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군조합의 자동차 경정비 사업 여건 확보를 위해 자체 사옥 갖기를 권장, 32개 시·군조합중 22개 조합이 자체 사옥을 마련했다.

아직도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는 10개 조합도 자체 사옥 마련을 추진 중이어서 전조합이 자체사옥을 마련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판매, 경정비를 통한 복지사업의 지평이 전조합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조합원수가 1000명이 넘는 조합을 선정해 LPG충전소 직영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기조합은 직영충전소 여건을 갖추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조합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충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창영 이사장은 “시·군조합 역량강화를 돕기 위해 10억 원 정도의 기금마련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조합은 승객의 택시요금 불신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의 택시요금 체계가 들쭉날쭉하여 법인택시측과 협상을 통해 ▲도시지역 요금 ▲도농지역 요금 ▲농촌지역 요금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요금체계를 통일시켰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시서비스 평가에서 2년 동안 20개 시·군조합이 우수평가를 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는 실적을 올렸다.

◆ 조합원 찾아가는 움직이는 이사장

도내 32개 시·군조합에 산재되어 있는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이사장은 부지런하게 시·군을 방문을 위해 움직인다.

“이사장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찾아오는 조합원을 만나려고 하면 하루에 한 명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조합원의 실정입니다. 조합원과 소통하지 않고는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없어 이사장의 업무시간을 되도록이면 외근으로 짜놓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조창영이사장은 새벽 6시에 기상하면 오늘은 누구를 어디가서 만날까를 구상하면서 출근을 한다.

“1년에 한차례씩 실시하는 일제점검 실시 2개월 동안은 조합원들을 편하게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해주는 소통의 시간을 갖지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조합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을 놓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다 보면 생산적인 만남이 됩니다” 조 이사장이 조합원을 만나 현장을 누비는 이유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의회 의원

경기조합을 이끄는 임원진

				
감사 오석길	고양조합장 편창대	안성조합장 최상진	광주조합장 탁영구	가평조합장 박성규
				
안산조합장 백용호	용인조합장 김영식	이천조합장 이상인	양주조합장 양재화	성남조합장 지충구
				
동두천조합장 최흥식	여주조합장 김동일	수원조합장 문병윤	화성조합장 김재웅	평택조합장 임형식
				
광명조합장 이명섭	의왕조합장 김상남	구리조합장 정철규	오산조합장 김상철	김포조합장 강흥구
				
연천조합장 양승감	평택조합장 정영섭	부천조합장 김희석	포천조합장 박화영	하남조합장 유재관
				
파주조합장 윤우석	남양주조합장 박일식	의정부조합장 김인걸	시흥조합장 조석제	과천조합장 김정수
				
양평조합장 김학식	안양조합장 한규표	군포조합장 박종기		

말고도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54명이나 된다.

조 이사장의 바쁜 행보에는 이들을 만나서 업계의 현안을 건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사장의 중요 임무중의 하나이다.

“택시의 대중교통 시대에는 연합회와 시·도조합,

시·군구의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시·군조합 방문은 빈번해야 합니다” 조 이사장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어느 업무보다 중요시 한다.

〈김관술 기자〉



## 전북조합을 가다



개인택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영역을 확대, 업무용 택시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조합 **박 상 익** 이사장

“도조합은 연합회와 함께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택시운송 여건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시·군단위 조합과도 협력하여 전북도와 시·군을 상대로 조합원의 택시운송여건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택시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7일 기자와 만난 박상익 이사장은 차분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조합 경영 전략을 밝힌다.

전북조합은 전국 16개 조합 가운데 조합원수가 5,727명으로 8번째로 중간 규모이다. 또한 전주시 조합을 비롯 6개시 조합과 완주군 조합을 비롯 8개군 단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짜여있지만 도 조합의 택시분포는 전체 5,731대중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에 4,300대가 몰려있고 정읍시 등 3시 8개군에는 1,434대가 분포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북조합은 제4대부터 제10대까지 이사장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고 있지만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분열이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조합원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도조합 운영을 위해 내는 조합비도 한사람도 연체자가 없이 매월 100% 납부실적을 올릴 정도로 조합원들의 조합사랑이 각별하다.

### ◆ 맞춤형 복지사업 실현

“조합원들의 운송경비를 낮춰주기 위해 실현하는 차량부품 복지사업을 도조합이 일괄구매하여 단위조합에 판매하는 것은 유통경비가 발생 비효율적입니다. 유통경비를 절약하면서도 대량구매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도조합은 업체를 선정 낮은 납

품단가를 결정하고 구매는 단위조합이 직접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익 이사장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전북조합은 업체를 선정 자동차부품과 타이어 등을 구매단가 협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해 4월 20일부터 (주)모빌원과 구매거래를 시작 지난해 12월 현재 1억4천만원어치를 도매가격으로 구입 단기간동안 2천여만원이 넘는 절약효과를 조합원에게 돌려주었다.

타이어도 전북지역에서 최대업체인 777타이어 백화점과 지난해 8월13일부터 단가협약을 맺고 구매사업을 실시 12월 현재 4개월동안 3200여개 2억8000만원어치의 타이어를 도매가로 구매하여 시중타이어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20%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도조합에서 실현하는 복지사업 이외에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시 단위조합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 ◆ 업무용 및 통학택시 추진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북도청과 업무택시 협약을 맺고 업무택시 제도를 개발한 전북조합은 전북대, 원광대 등 학교 등에도 업무택시를 확대하여 조합원의 운송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군산교육청 등 전북도내 8개 교육청과 통학택시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용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업무용 택시 보급이 현재 15대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개인택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업무용 택시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은 틈새시장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면 조합원의 운송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이

사장의 생각이다.

### ◆ 브랜드택시로 서비스 개선

군산단위 조합장 시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만금 브랜드콜’ 600여대를 발족시켜 하루 6,000콜 이상을 받아 고객결연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로 참여 조합원의 운송수입을 크게 향상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박상익 이사장은 2011년 전북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브랜드콜 택시를 추진했다.

전주조합 ‘한옥브랜드콜’ 1,400대 ‘전주브랜드콜’ 600대, ‘익산서동브랜드콜’ 600대 등을 발족시켜 도조합 개인택시 5,727대중 총 4,182대를 콜시스템을 장착하여 장착율 73%로 브랜드택시를 확대했다.

또한 박이아장은 택시의 편의기능 향상에 역량을 집중도·시군비 지원을 받아 네비게이션과 영상기록장치는 100%, 디지털운행기록계는 2012년 현재 4,362대,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기는 4,726대에 장착하는 실적을 올렸다.

### ◆ 익산, 정읍 감차보상 실시

2009년 여객자동차 사업법 일부개정으로 감차보상 입법이 되었으나 국토해양수산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보상감차는 전국적으로 담보상태에 놓여있다.

“지자체의 보상감차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전북도는 택시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756대를 적정 감차대수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 107대를 지난해 보상감차했습니다. 비록 익산시와 정읍시 등 2개 시청에서만 19억원을 들여 보상감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2개시의 감차는 담보상태에 있는 보상감차를 견인하는 돌파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택시의 운송 경



전북조합을 이끄는 임원진



이사 하병영



이사 서세원



이사 서광식



이사 김주식



이사 서준성



이사 최성호



이사 조병호



이사 김광식



이사 박근주



이사 김상준



감사 최용운



감사 유인근



감사 김윤상



전주조합장 이문규



익산조합장 이상현



군산조합장 이홍선



정읍조합장 최정열



김제조합장 박채섭



남원조합장 김진근



부안조합장 김해웅



고창조합장 홍순철



원주조합장 이길영



임실조합장 왕동열



순창조합장 송양수



무주조합장 정경래



진안조합장 엄만섭



장수조합장 정준원



대의원 정동섭



대의원 이막동



대의원 한준규



대의원 홍문표



대의원 김중태



대의원 최복상



대의원 정문수



대의원 이길구



대의원 박찬기



대의원 송공섭



대의원 박종식



대의원 소승섭



대의원 조병욱



대의원 박성용



대의원 최옥술



대의원 권정일



대의원 양인권



대의원 이성길



대의원 강철승



대의원 주병선



대의원 채영석



대의원 김정하



대의원 배해수



대의원 송재욱



대의원 이광삼



대의원 김기상



대의원 박준양



전주 박일성



공제부지부장 박도현

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동적으로 보상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박상익 이사장은 올해도 도내 6개시에서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할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박이사장은 김완주 도지사와 단독면담을 갖고 택시경영 환경을 해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국토해양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 반대건의서를 전달했다.

◆ 체력증진 화합위한 체육대회

전북도조합은 격년제로 14개 시·군 단위조합 조합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열고 있다.

축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지는 체육대회는 어김없이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이 초청되어 함께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또한 시·군조합원이 한자리에서 경기를 벌이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단합의 장이 된다. <김관술 기자>



공제 경쟁력을 말한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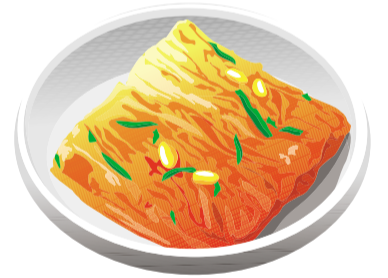


올겨울 추위가 유난히 매섭다. 겨울이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것도 이유지만,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요 몇 년새 가장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울수록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겨울은 그들에게 시련과 고통의 계절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불우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작은 것 이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들도 올겨울 사랑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나갔다.

12월 5일 토요일 아침 9시. 인천에 위치한 송림복지관에 공제조합 직원들과 가족 총 18명이 모였다. 이날 공제조합 직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김장을 담그는 일이었다. 복지관 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강당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일행들은 곧바로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김장을 할 테이블을 설치하고 고무장갑, 앞치마 등 준비물을 나눠 갖자 이내 배추와 속을 가득 실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다. 남자 직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배추와 속을 지하 1층 식

당으로 날랐다. 배추와 속이 각 테이블 별로 배분되고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다. 이날 공제조합 일행들이 만든 김장 김치는 총 100포기.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 허리가 조금씩 쭈서왔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사라질 줄 몰랐다. 정신없이 김장을 담그노라니 시간은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다. 복지관에서는 수고하는 공제조합 직원들을 위해 삶은 돼지고기와 김장 김치를 점심으로 제공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점심을 마친 직원들은 이제 남, 녀 두조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남직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김장한 김치와 쌀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와 쌀을 한 가득 차에 실은 직원들은 다시 두 조로 나누어 배달 봉사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한 가정은 총 20가정으로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인 독거노인들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신 '고마워요'를 외치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 시각 복지관에 남아있는 여직원들은 김장 후 뒷정리를 시작했다. 김장에 쓰인 그릇들의 설거지와 식당 청

소 및 물품정리 등의 일이었다. 직원들의 자녀들도 고사리 손으로 빗자루, 걸레를 잡고 한 몫 거들겠다고 구슬땀을 흘렸다. 아침 9시에 시작한 봉사활동은 오후 3시쯤 모두 마무리 됐다. 토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한 공제직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사랑실천의 뿌듯함과 행복이 묻어났다. 특히 이날 마련된 배추와 재료, 쌀은 공제 직원들이 일년동안 조금씩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의미가 더 컸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제조합 직원들처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총무팀>



## 연료비를 절감시키는 똑똑한 '카비아 플러스'가 고유가 시대의 대책이다

최근 2~3년 동안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LPG가격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고유가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속운전으로 에코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또한 연료절감 첨가제나 연료절감기를 사용하면서 알뜰경영을 시도한다. 하지만 연료절감 효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실망을 할 때가 많다. 이런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고충을 살뜰하게 알아주는 '카비아 플러스'가 알뜰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주기를 20만 km로 연장시키는 엔진 오일 '아웃도반'과 LCD 블랙박스 '나인 뷰'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썬우가)가 만든 '카비아 플러스'는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 80km 정속 운행 시 10~13% 연료절감 효과를 내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2006년 5월 24일 자동차 연비 성능 검사기관으로부터 연료 절감 시험 성적서를 받았고 미국 FCC마크, 유럽 CE마크, 독일 DAR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에서도 4280회의 방전시험을 실시해 배터리 수명이 2배 연장된다는 데이터를 받았다. 고안수 자동차 정비 기능장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최대 20% 이상 연료가 소모된다."고 말하고 '카비아 플러스'는 배터리 성능을 우수하게 관리하는 제품이라고 추천한다. 고안수 기능장은 "시동을 걸 때 배터리는 전기를 공급한다. 하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면 차량 내 모든 전기는 발전기가 공급한다. 그러나 배터리 성능

이 떨어지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발전기가 바빠지면서 엔진출력을 배터리에 빼앗긴다. 마치 양동이에 구멍이 생기면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성능 떨어진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 발전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간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카비아 플러스'가 연비를 늘리는 원인이다."라고 설명한다. 2012년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받은 '카비아 플러스'는 고유가시대 LPG를 절약하는 확실한 알뜰경영의 대안이다.



아름다운 사람들 -  
수원조합 임마누엘 기사선교회



# 독거노인에게겐 효도관광 소년·소녀가장에게겐 생활비지원

나눔의 봉사 통해 행복 배우고 회원간 친목도 다져

수원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어르신을 29년째 효도관광 여행을 시켜주는 수원조합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화제다.

개인택시수원시조합원이 주축이돼 운영하는 임마누엘기사 선교회는 회원수가 1백명이 넘는 거대한 친목단체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982년 기독교신자 7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모여 창립된 임마누엘 기사선교회는 올해로 32년이 되는 유서깊은 봉사단체다.

회원들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이어서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형편이지만 기독교신앙인으로써 도리를 하기 위해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효도관광을 베푸는 봉사를 선택했다.

1984년 40명의 회원이 모여 40대의 택시를 동원 1백여 명의 독거노인을 싣고 처녀 효도관광을 떠났다.

서먹한 기분으로 떠난 효도관광 여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자식처럼 친숙해졌다.

1년을 기약하고 헤어질때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별을 아쉬워했다.

어르신들에게는 홀로 생활하면서 몸 속 깊이 베인 외로움을 털어내기에는 하루여행은 너무 짧았다.

하지만 부모같은 독거노인들에게 효도관광으로 사랑을 나누회원들은 "사랑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수확을 얻었다고 말한다.

◆ 봉사활동 영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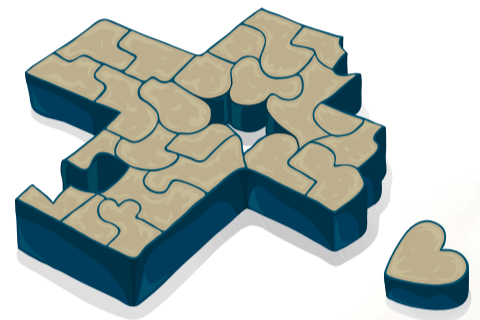
첫 봉사활동인 효도관광으로 자신감을 얻은 임마누엘기사선교회는 29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효도관광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해갔다.

수원시내 소년·소녀가장 아홉가정을선발해 매월1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2개소의 복지시설에도 매월 15만원씩 지원, 1년에 지원하는성금이 1천4백40만원이 된다.

임마누엘기사선교회의 선행이 수원시 조합내에 알려지면서 가입희망자가 늘어 이제는 회원수가 1백명이 넘는다.

지난해 봄에 실시한 독거노인 효도관광은 1백명의 회원이 1백대의 택시를 동원하여 3백명이 넘는 어르신을 관광여행시키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1년에 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봉사활동 자금을 회원들의 노력으로 해결하면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눔의 기쁨을 자신의 행복으로



반아들인 회원들의 봉사정신 때문이었다"고 정순태회장은 말한다.

◆ 상부상조로 유대강화

임마누엘기사선교회는 봉사활동 못지 않게 회원간의 끈끈한 친밀감과 결속을 으뜸으로 추구한다.

매월 1만원씩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선교회는 회원의 애사는 50만원, 본인 사망시는 1백만원, 20일 이상 차량정지 때는 20만원, 3개월이상 정지 때는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회원의 어려움에 상부상조한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부부동반으로 1백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열어 회원간의 친목도모로 유대를 강화한다.

축구, 배구, 족구, 볼링, 줄다리기 등 여러 종목으로 회원 참여 폭을 넓힌다.

☎ 문의전화 017-243-9304 (정순태 회장)

(김관술 기자)



▲ 임마누엘 기사선교회 정순태 회장.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 26년의 혁신으로 완성하다 2013 그랜저 택시 탄생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실시 중



### 기사님을 위해

- 열선 스티어링 휠
- 운전석 4WAY 럼버 서포트
- 통풍시트
- 6인치 컬러 TFT LCD 오디오 (후방 카메라 기본 적용)



### 승객님을 위해

- 나뭇가지축시트
- 후석 다기능 암레스트
- 후석 전동커튼 및 후석 도어매뉴얼커튼
- 후방 충격 저감 시트 시스템



### 드라이빙과 경제성을 위해

- 235마력의 람다II 3.0 LPI 엔진(\*8.2km/ℓ)  
\*공인연비
- 6단 자동변속기
-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
- 통합주행모드

2013 그랜저 신규 외관 디자인 사양 ■ 버티컬타입 라디에이터그릴 ■ 17인치 알루미늄 휠

NEW & ORIGINAL  
**2013 GRANDEUR TAXI**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호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0 LPI : 복합 8.2km/ℓ(도심:6.8km/ℓ, 고속도로:10.6km/ℓ) | CO2 배출량:166g/km | 배기량:2,999cc | 공차중량:1,620kg | 자동6단(5등급) ※ 위 연비는 시내와 고속 주행의 두 가지 연비를 측정 후, 이를 다섯 가지 실주행조건(5-Cycle)을 반영한 보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실연비에 가까운 측정방식입니다. (5-Cycle :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조건 주행)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